

지역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경남대학교



1 경남대 전경 2, 3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



3

경남대학교는 1946년 개교 이후 '미래를 열어가는 지역감동대학'이라는 비전 아래 지속해서 대학 특성화와 경험기반 교육과정 운영에 힘쓰면서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최상의 면학 분위기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사계절 내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친환경적인 월영(月影) 캠퍼스를 구축했다.

올해로 개교 74년을 맞은 경남대는 현재 7개 단과대학, 7개 학부, 43개 학과, 11개 부속기관, 16개 연구소를 갖추고 있다. 1만5천여명의 재학생과 1천여명의 교수·직원이 있으며, 사회 곳곳에 진출해 있는 14만여 명의 동문이 학교 발전과 재학생들의 취업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최우수 등급

경남대는 최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2019년 대학혁신지원사업(1유형, 자율협약형) 연차평가'에서 상위 30%만 선정되는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경남대는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돼 자율적인 정원 운영과 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를 통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학생 성공을 위해 혁신하고, 지역에 공헌하는 대학' 구현을 목표로 지속적인 교육 혁신을 이어왔다.

이로써 경남대는 ▲ 전문 분야의 직무 모듈 기반의 교육과정 혁신 ▲ 하이테크 하이테크 학습 중심의 교수학습 혁신 ▲ 개인 맞춤형 진로지도를 위한 학생지도체계 혁신 ▲ 블렌디드 학습을 지원하는

요구하는 교육 달성을 위한 교과목 개편을 진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경남대의 '나노신소재공학과'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식품영양학과'는 산업계가 인정할 만큼 가장 우수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서 미래 산업을 선도할 인재양성에 앞장서 온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게 됐다.

정부 지원사업 선정과 지역과 상생으로 미래 핵심 인재 양성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경남대는 여러 정부 지원사업과 평가에서 뛰어난 성과를 얻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경남대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진행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산학협력 고도화형) 연차평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이행으로 인한 글로벌사회 공헌과 취업역량관리시스템(UOK-CRM)체계 운영 등 매우 우수한 평가를 거두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산학 실무형 창의 융합 인재 양성과 지역 사회 및 산업체와의 산학협력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게 됐다.

또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국제화역량(IEQAS) 인증대학에 5년 연속 선정됐는데,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우수 인재 양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제교류 선도대학으로서 역량을 인정받게 됐다.

이밖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2020년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의 '메이커스페이스 우수기관 선정', '경상남도 마을기업 지원기관 선정', 통영시와 '2020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운영 대학 선정' 등 혁신적인 기자재 및 교육환경 구축, 스마트 산단 고급인력 양성 기반 구축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 핵심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❶

교실환경 혁신 등 4대 혁신을 추진하면서 국가 혁신 성장의 기반이 되는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체계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교육부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최우수 학과 배출

경남대는 최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관한 '2019년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에서 참여 대학 중 유일하게 3개 분야 모두 최우수 학과를 배출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평가는 참여를 희망한 대학의 신소재(금속·세라믹), 미디어, 식품 등 3개 분야 관련 학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포스코, 두산중공업, LG디스플레이 등 22개 기업 임직원과 대학평가 전문가, 1천 105개 기업체 부서장 및 참여 학과 학생 등이 참여해 평가했다.

경남대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아가 산업계가